금주의 법구-〈대애도비구니경〉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다.
잘못의 시초이며 악의 근본이다.
술은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1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8호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탈북민 입국과정 불자는 10%
초기부터 포교하는 스님 없다

北인권정보센터 발간 〈2017 종교자유백서〉 살펴보니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과정서 불자는 10명 중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시점에서 조사시설(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과 하나원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입국 초기 포교의 중요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 소장 김웅기)는 12월 13일 2007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만2481명에 대한 종교조사결과를 담은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백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면서 누적된 정보로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 비율이 아닌 입국과정에 대한 결과다. 올해 새로 추가된 인원은 746명이다.

백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1만1765명 중 불교는 1188명(10.1%)으로 개신교 4907명(41.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불교는 무종교 3292명(28%)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톨릭은 1122명(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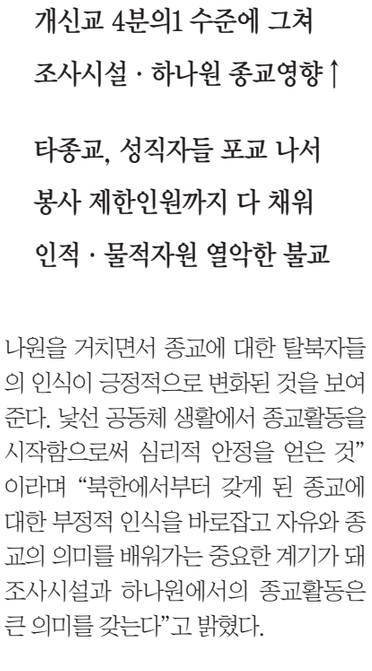
불교는 개신교의 4분의1에 불과한 신자 수가 집계됐지만 2008년 6.6%에 비해 꾸준히 늘어났다. 최근 3년 새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는 64.9%에서 올해 41.7%로 10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종교활동 시작 시점이다. 조사결과 한국에 입국하기 전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에서부터 종교활동을 시작한 비율은 37.1%였으며, 입국 후는 62.9%로 나타났다.

백서를 발행한 북한종교감시기구는 "최근 입국자의 경우 중국 체류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고,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종교기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시설과 하나원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자가 평균 1~3개월 전후 체류하는 조사시설에서 3002명(33.9%), 3개월 동안 합숙생활하는 하나원에서 2571명(29%)이 종교활동을 시작했다. 중국에서부터는 2713명(30.6%)이었다. 특히 하나원서 종교활동을 시작한 비율은 2008년 7.7%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북한종교감시기구는 "조사시설과 하나원을 거치면서 종교에 대한 탈북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준다. 낯선 공동체 생활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은 것"이라며 "북한에서부터 갖게 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자유와 종교의 의미를 배워가는 중요한 계기가 돼 조사시설과 하나원에서의 종교활동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탈북불자, 10년간 늘었지만
개신교 4분의1 수준에 그쳐
조사시설 · 하나원 종교영향↑

타종교, 성직자들 포교 나서
봉사 제한인원까지 다 채워
인적 · 물적자원 열악한 불교

"목사 · 신부는 많은데…"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초기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이탈주민 포교를 담당하는 포교사들에 따르면 현재 조사시설에는 포교하는 스님이 없다. 타종교계서 목사 · 신부 · 수녀 등이 조사시설에 들어와 전도하는 데 비해 불교는 포교사뿐이어서 영향력이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한 포교사는 "현재 조사시설에 있는 탈북민 중 불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포교사들의 연령대도 비교적 높은 데다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탈북민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잡한 마음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즐겁게 해주는 게 우선"이라며 "개신교계에서는 성직자들이 기타연주도 하고, 농담도 하면서 편안하게 접근한다. 스님들도 이곳에 정기적으로 찾아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머무는 안양 하나원에서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이 꾸준히 포교하며 불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하지만 남성 북한이탈주민 시설인 화천 제2하나원에는 스님과 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하나원에서 활동하는 다른 포교사는 "개신교는 교역직을 비롯해 출입 가능한 봉사인원 20명을 다 채워온다. 시각적으로도 사람이 많아 북적이면 탈북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마련"이라며 "불교는 봉사자가 4~5명인데다 스님도 없어 홍보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적 · 인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10여 년째 하나원 포교를 이어오고 있는 지강 스님은 "스님들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몸만 가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고민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나아지기 어렵다"며 "칠장사 살림 중 포교비로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 큰 원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주변에 권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종교활동 탄압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809명(50.9%)이 종교활동 적발 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고 답했다. 정치범 수용소행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포상식 이후 수상자들과 주요 내빈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지형 · 도혜 · 일초 · 묘순 · 무상 · 명성 · 원행 · 설정 · 지홍 · 종진 · 현응 · 덕민 · 지안 · 용학(무비 스님 대리) · 덕문 스님(혜남 스님 대리) **사진= 박재완 기자**

종단 인재불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계종 교육원, 12월 19일 첫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식

평생을 종단 인재불사에 매진해 온 교육 교역자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승가교육 공로자 포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포상식에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 · 포교원장 지홍 · 호계원장 무상 ·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과 승가대학 관계자와 신도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승가교육 공로자는 종단의 승가교육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교육 경력 30년 이상의 원로 교역자 스님 10명이 선정됐다.

비구 스님으로는 종진 스님(법계위원), 덕민 스님(경주 기림사 성림금강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무비 스님(前 범어사 승가대학장), 혜남 스님(영축총림 율주,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 교수), 지안 스님(고시위원장)이 수상했다. 다만, 무비 스님과 혜남 스님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으며, 용학 스님과 덕문 스님이 대리 수상했다.

비구니 스님으로는 명성 스님(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묘순 스님(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일초 스님(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장), 도혜 스님(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지형 스님(청암사 승가대학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포상을 받는 스님에게는 표창패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설정 스님은 치사에서 "승가교육이 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스님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라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교학 연찬을 위해 컴퓨터를 마주하며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는 원로 교직자 스님들의 열정을 귀감삼아 후학들의 쉼없는 정진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상을 받은 스님들은 그간 도움을 준 인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정진을 약속했다. 종진 스님은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이끌어주신 스님들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인연에게 공을 돌린다. 이를 채찍으로 삼아 공부하고 회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안 스님은 "앞으로도 승가는 사회 변화에 맞춰 전법과 포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가교육은 계속 발전해야 한다. 나 자신도 정진 또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성 스님은 "덕이 많지 않아 이런 칭찬을 받는 게 쑥스럽다. 초심으로 돌아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죽을 때까지 후학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으며, 일초 스님은 "45년 동안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있는가를 돌아봤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신성민 기자**

태고종 종단 부채 해결, 발전 신호탄

12월 19일 중앙종회 제132회 정기회서 발표

태고종이 종단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12월 1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32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종단 부채 상환경과에서 "지난 임시회에서의 종단부채 상환 위한 교육기금 전용으로 부채를 상환해 11월 30일부로 부채문제는 종결됐다"고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2018년도 중점 사업으로 △전통종단 위상 강화 △제도 보완 및 법치주의 실현 △종단조직 재정비 △분담금 징수제도 합리화 △승가정신 함양 및 수행풍토 조성 등을 제시했다.

편백운 스님은 "태고종은 내부로 역량을 결집시키고 밖으로 이를 확대해 교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누구라도 손을 잡고 종단안정과 종세성장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고종 중앙종회는 후반기 중앙종회 의장으로 도광 스님을, 부의장으로 시각 스님과 상명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과 지역 교구 여론을 받아 종법을 충실히 행사하겠다. 함께 상생하는 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총무원과 중앙종회, 호법원이 화합하며 적절한 견제로 종단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18년 태고종 세입 · 세출 예산안은 늘어난 분담금과 각종 지원비 등에 대한 종회의원 스님들의 지적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이에 대해 2018년 2월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